

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 (2)

연구기간

2021년 4월 ~ 2021년 11월

핵심단어

사망통계, 근로자 사망,
표준화사망비, 업종

연구배경

- 국내에서는 여러 형태로 사망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고 있으나, 근로자 사망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.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0년 ‘근로자 사망통계 연보 개발 시범사업’을 통해 2018년 근로자 사망 중 외인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.
- 본 연구를 통해 2018년 근로자 외인사 사망통계에 대한 보완 및 최신화를 하고, 이에 내인사 사망통계를 추가하여 보다 완전한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를 제시,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.

주요연구내용

연구결과

- 2018년 사망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고용보험 상실 90일 이내에 사망한 자는 외인사 4,160명, 내인사 8,683명이었으며 이중 사망 후 보험을 취득한 3명은 분석에서 제외, 총 12,840명이었다.
- 사망자 수는 남성(83.0%), 50대(28.7%), 제조업(23.5%)이 가장 많고, 사망원인 별로는 악성신생물(27.9%), 자살(17.8%)순으로 많았다. 잠재근로손실연수는 자살(30.8%), 악성신생물(18.8%)순으로 높고 평균 잠재근로손실연수는 타살, 자살, 운수사고 순임. 전체 인구 대비 근로자 집단에서 비례사망률이 높은 사망원인으로는 자살, 운수사고, 간암, 심장질환이 있다.
-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사망률이 증가하며,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세 배 이상의 조사망률을 보였고, 업종별로는 연령표준화를 하였을 경우 건설업, 광업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순으로 높았다.
- 대부분 사망률이 높은 업종에서 세부 원인별로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거나 일부 다른 경향을 보이고, 연령대별로 보면 그 차이가 더 나타났다.(운수사고의 경우 19세 이하의 건설업,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사망률이 높으나 50대 및 60대에서는 광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에서 높음).
- 업종별로 국민 전체의 사망률과 비교하여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였을 때 대부분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표준화사망비를 보였으며, 이는 건강근로자효과로 생각된다.

그러나 일부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, 외인사 전체(광업), 운수(광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 재생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운수 및 창고업), 중독(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 재생업), 기타 외인(광업)에서 일반인구 대비 표준화사망비가 높았다.

시사점

-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망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고 있으나, 직업적 요인을 고려한 근로자 사망 통계는 2020년 ‘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’을 통해 외인사에 대한 통계가 제시된 것 외에는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‘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’을 통해 제시된 2018년 근로자 외인사 사망 통계에 내인사 사망통계를 추가하여 보다 완전한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를 제시하고,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시사한다.

연구활용방안

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

- 고용보험자료의 오류 및 누락사항이 해결되어야 하며,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및 고용보험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변수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.
-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.
-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료를 추가하여 연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여야 한다.

활용방안

- 본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사망연보의 분석방법 및 결과 제시 양식을 토대로 연도별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를 발간할 수 있다.
- 업종별 사망률 자료는 업종별 산업보건관리 실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
- 사망률이 높은 업종 및 사망원인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,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

연락처

연구책임자 | 아주대학교 정인철 교수

연구상대역 |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중부권역학조사팀 윤민주

연락처 | 032-510-0756

e-mail | mjmj@kosha.or.kr